

## 빅샷 : 카스카 토너먼트

# 유쾌! 상쾌! 통쾌! 격투슈팅게임



20대 여성층을 주 타깃으로 한 〈빅샷 : 카스카 토너먼트(이하 빅샷)〉는 넥슨이 개발, 서비스하는 액션슈팅 온라인 게임이다. 흔히 액션슈팅을 소재로 한 게임은 건슈팅을 떠올린다. 빅샷은 건슈팅 뿐만 아니라 액션을 적절히 조합하여 다양한 캐릭터와 맵별로 공략이 필요한 전략까지 겸비한 게임이다. 지난해 10월 14일 오픈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이후 겨울방학을 맞아 유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빅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글 정동진 게임어바웃 기자

빅샷은 건슈팅을 소재로 한 게임이다. 일반적인 건슈팅게임은 타깃만 확인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빅샷은 타깃과 자신의 캐릭터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캐릭터끼리 대전을 벌일 수 있는 격투 요소와 총을 들고 타깃을 맞히는 슈팅 요소의 장점만을 잘 조합한 것이다. 특히 격투슈팅은 멀리서 자리 잡고 총을 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즉 FPS게임에서 자리를 잡는 용어를 뜻하는 캠핑보다 계속 움직여야 공격당할 확률도 줄이고, 생존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격투를 한다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각 캐릭터 별로 ‘무투기’를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 무투기는 빅샷에서 일종의 필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근접공격을 말한다. 현재 유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타이·카실·프로코 총 3가지로 SP를 소모하는 돌격기를 가지고 있다. 캐릭터간의 형평성을 위해 최대 SP수치는 100으로 설정했으며, 한번 사용할 때마다 소모되는 SP도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 부분은 격투게임에서 똑같은 체력게이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동일한 설정이다.

격투게임은 서로 마주보고 싸우는 게임이다. 그래서 상대편을 공격 할 때 자신의 공격은 성공하고, 상대편의 공격이 실패하면 그만큼 상대편보다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이다. 빅샷도 이러한 설정을 차용, 근접전에서 무투기를 사용할 때 SP소모와 회복시간의 차이를 둔 것이다.

이 외에도 가볍게 즐기는 슈팅게임에 각 캐릭터별로 체력과 이동속도를 차별화 했다. 타이는 균형적인 캐릭터로 HP100과 이동속도 7, 카실은 스피드형 캐릭터로 HP90과 이동속도 8, 전투적인 캐릭터인 프로코는 HP130과 이동속도 5로 구분했다. 예를 들면, 타이를 기준으로 카실은 이동속도가 빠른 대신 HP가 적고, 프로코는 이동속도가 느린 대신 높은 HP를 소유한 캐릭터다. 유저의 취향에 따라 후방지원과 화끈한 슈팅을 하고 싶다면 프로코, 돌격형과 기습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카실, 저격과 캠핑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타이를 추천한다.

### 고수가 되려면 공부를 하자!

오락실에서 건슈팅게임을 한번이라도 즐겼던 유저라면 “Don't Shoot!”, “Help me!”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외침소리와 함께 방아쇠를 당기면 플레이어의 하트가 하나씩 줄어들던 암담한 심정은 누구나 경험한 것이라 생각한다. 건슈팅게임의 고수들은 특정 장소에서 출현하는 NPC와 아이템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 빅샷의 고수 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될 수 있다.

빅샷의 맵은 2D로 제작됐으며, 재미를 살리기 위해 점프대·함정·은신처 등의 다양한 지형지물이 배치되어 있다. 국민게임이라 불렸던 〈포트리스〉를 즐겁게 했던 유저라면, 맵 가장자리에 있는 사각지대와 포탄을 이용해 만든 참호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빅샷은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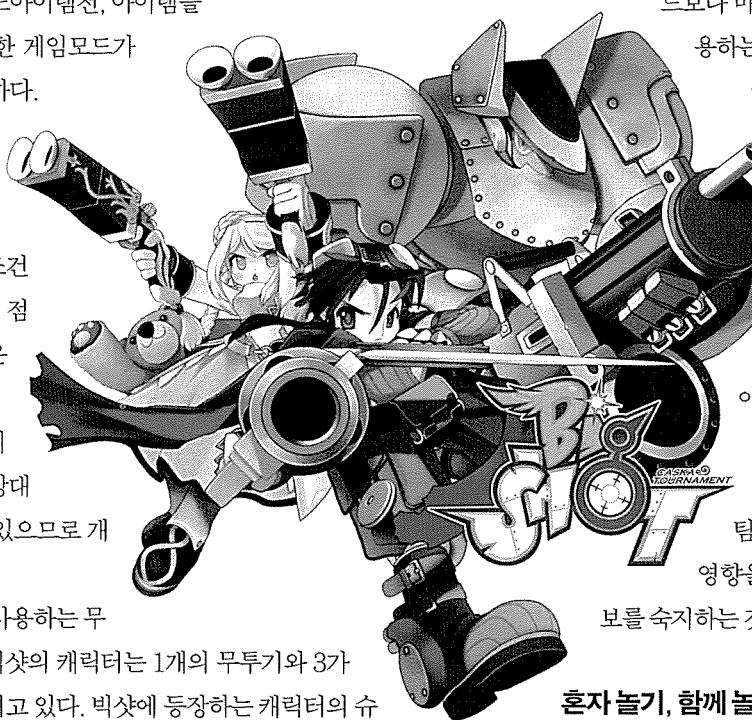


템을 사용하지 않는 무투전과 노아이템전, 아이템을 사용하는 아이템전 등의 다양한 게임모드가 존재하여 맵마다 전략이 필요하다.

혹자는 노아이템전에 무슨 전략이 필요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빅샷의 노아이템전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무조건 전슈팅만 즐기는 것이 아니다. 점프대를 이용한 높은 도약과 은신처의 적절한 활용은 고수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특히 점프대를 이용한 공격방법은 상대 편을 교란시키면서 공격할 수 있으므로 개인전이나 팀전에서 유용하다.

또한 맵과 더불어 캐릭터가 사용하는 무기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빅샷의 캐릭터는 1개의 무투기와 3가지의 개성적인 슈팅무기를 가지고 있다. 빅샷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슈팅무기를 모두 합하면 9가지나 된다. 게다가 향후 추가되는 용병 앤리 어스까지 합한다면 12가지로 늘어난다.

지금 구현된 무기들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캐릭터를 한 명씩 해보는 방법 외에는 없다. 무기변경을 숫자 1·2·3키가 이동키인 W·A·S·D 위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조작법은 어렵지 않다. 물론 마우스의 휠을 이용한 무기변경도 가능하므로 키보



드보다 마우스에 익숙한 유저라면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특정 캐릭터를 계속 육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맵에 따라 캐릭터를 변경해야 한다. 특히 3:3 팀전의 경우에는 팀원의 구성이 중요한 편이다. 프로코로만 구성한 화력팀은 화력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기동성이 떨어져서 아이템전이나 노아이템전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개인전은 자신의 주력캐릭터를 이용해 게임을 할 수 있지만, 팀전은 팀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맵에 대한 사전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좋다.

### 혼자 놀기, 함께 놀기의 진수

빅샷은 혼자 놀기 좋아하는 유저들을 위한 싱글플레이 모드도 존재한다. 특히 싱글플레이 모드는 일반적인 전슈팅게임과 비슷하다. 일종의 사격연습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표적을 맞히는 게임으로 다양한 모드를 제공한다. 인터넷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플래시게임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지만 다른 게임에 벼금갈 정도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 쉽게 설명한다면 오락실에서 1인용으로 즐기는 전슈팅게임



이라 생각하면 된다. 비록 미니게임 형식으로 제공되지만 기록을 갱신하는 재미도 쏠쏠하므로 혼자 놀기의 진수를 느끼고 싶다면 수련모드를 해보도록 하자.

또한 혼자 놀기의 진수보다 더욱 무서운 중독성을 가진 '보스전' 이 있다. 빅샷에서 혼자 놀기와 양대 산맥(?)인 함께 놀기 중의 하나인 보스전은 보스를 쓰러뜨리기 위해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게임 모드다. 일반적인 MMORPG에서 보스몬스터를 잡기 위한 레이드라고 생각하면 쉽다. 보통 보스몬스터를 공략하는 이유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캐릭터의 강함을 느끼는 것보다 전리품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팀이나 길드단위로 움직이는 보스전 공략은 레어아이템이라 불리는 '희소성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빅샷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게임임에도 불구하고 MMORPG에 존재하는 레이드 개념을 도입, 더욱 몰입시켜주는 매력이 있다.

또 보스전을 진행하면서 숨겨진 맵을 찾는 이벤트 기능도 추가, 모험을 좋아하는 유저들을 위한 개발사의 세심한 배려도 알 수 있다. 개발사인 넥슨은 업데이트 일정을 맵과 아이템만을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형식의 업데이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바로 이러한 점이 보통 아이템과 맵 추가로 대변되는 소극적인 업데이트를 지양하고 다른 캐주얼 슈팅게임과 차별을 두는 전략이라 말할 수 있다.

## 옥의 티

이런 다양한 흥미 요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우선 캐릭터의 개성을 살리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상점에서 판매하

는 아이템은 기능성 아이템인 무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코스튬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실에서 아이쇼핑을 하는 것처럼 상점에서 코스튬 아이템을 구입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다. 단지 자신의 캐릭터를 ID로 확인하는 방법만이 전부다. 오히려 부분유료화를 가장한 아이템 구매유도를 선택하지 않은 점은 좋은 의도지만, 캐릭터의 개성을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또한 포인트를 모으기 어렵다. 게임 내 포인트를 모아서 코스튬의 상과 무투기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개인전이나 팀전에서 승리할 때 얻는 포인트로 구입하는 것은 힘들다. 자칫 잘못하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빅샷이 아닌 코스튬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한 포인트 모으기 노동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의 조절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차후 다양한 아이템이 상점에 업데이트 되는 경우를 대비해 개발사는 준비를 철저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빅샷, 겨울에 즐기는 격투슈팅 게임

빅샷은 격투슈팅 게임을 표방,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견슈팅게임에 긴장감과 통쾌한 격투요소를 결합한 점은 신선하다. 또 각 맵 별로 배치되어 있는 지형지물과 개성만점인 캐릭터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 즐기는 전략적인 플레이도 일품이다. 이번 겨울방학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빅샷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